

시와 독자의 만남 주도하는 기획시리즈

80년대부터 활기 띠기 시작, 현재 백여군데 달해

출판사 나름의 특색있는 표지, 시집의 제목 앞에 올라 앉은 일련번호들은 이제 웬만한 규모를 갖춘 서점의 시집 코너에서 책을 고르는 독자들에게는 시인의 이름이나 시집의 제목보다 더 손쉽고 간편한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기호가 되기도 한다.

이는, 시집 출판에 있어서 각 출판사의 기획을 통한 연속 출간 현상이 뿌리내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발행종수 1백권을 돌파했거나 육박하고 있는 선발 출판사로부터 이제 갓 출발, 서너권의 시집을 내놓고 있는 신예출판사에 이르기까지 현재 시집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는 1백여군데에 이른다.

70년대 중반 민음사 선두로 시집연속출판

시집의 시리즈 출판이 시작된 것은 70년대 중반. 하드카바에 거친 장정, 고작해야 시인의 자序나 후기만이 달랑 붙어 있을 따름이고 그나마 극히 한정된 부수만을 자비로 출판하여 知인에게나 돌려 읽히던 것이 당시 시집 출판 안팎의 실정이고 보면, 몇몇 출판사들의 시집 기획은 일정정도 모험을 내포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모험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독자층의 요구를 선도한 것으로 인정될 만큼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시집 출판의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이후 80년대 문단과 출판계의 새로운 증후로 상징되었던 '시의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많은 출판사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시집 시리즈 출판은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시집 출판의 보편적 양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집 시리즈 출간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민음사. 현재 시집의 크기로 일반화되고 있는 4·6변형판과 시집 뒤에 의례적으로 따라 붙는 평론가의 해설이 민음사가 '오늘의 시인총서'를 기획하면서 그 첫권으로 펴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로부터였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인들의 날카로운 직관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신적 상처와 기쁨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1974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이 시리즈는 초기 김춘수의 「처용」, 정현종의 「고통의 축제」 등 중견작가들의 작품으로부터 최근의 젊은 시인 안도현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에 이르기까지 30권이 나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신예작가들의 작품집을 중심으로 기획된 「민음의 시」는 현재 43권이 나와 있는데 장정일 「해버거에 대한 명상」, 구광봉의 「江」, 임동환의 「살아 있는 날의 비망록」 등이 있다.

시집 시리즈 출판이 시작된 것은

70년대 중반. 일정정도 모험을 내포한

기획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시집출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후 80년대 문단과 출판계의

새로운 증후로 상징되었던 '시의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많은 출판사들이

참여,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시집출판의 보편적 양상으로 자리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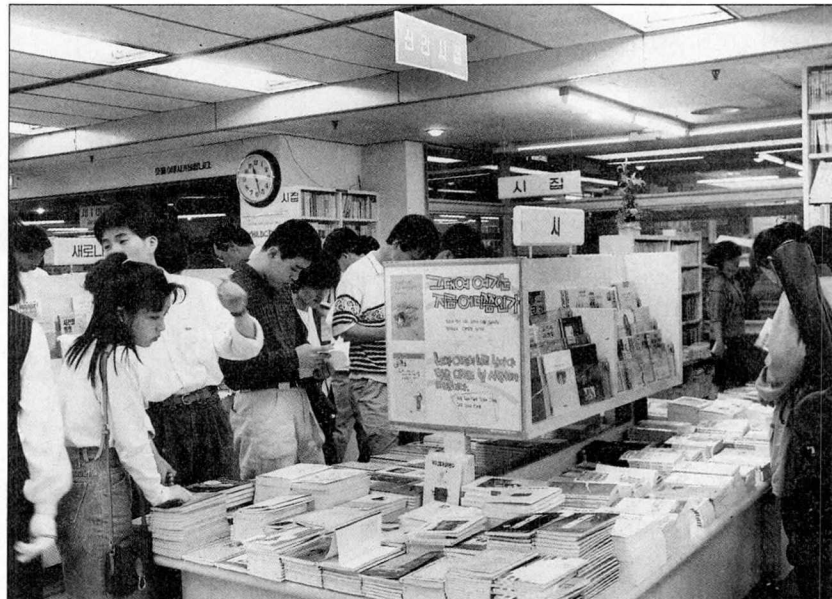
'시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집 연속출판의 선두주자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창작과비평사와 문학과지성사. 두 출판사에서 기획된 '창비시선'과 '문학과지성시선'은 특히 이들 출판사에서 펴내는 계간지들의 적극적 옹호를 받던 시인들을 중심으로 목록을 구성, 시집출판의 새로운 양상을 낳기도 했다. 이른바 '창비파'나 '문지파'나 하는 시집출판의 계열화 현상이 그것으로 이들 출판사의 시리즈 이름이 우리 시단을 '현실참여'와 '서정시'의 양대기류로 대별하는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1975년 신경림의 「農舞」로 첫발을 내딛은 '창비시선'은 조태일의 「國土」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등 치열한 현실인식과 문학의 사회변혁에의 복무를 지향하는 시집들을 주요 목록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박이도의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까지 총 92권이 나와 있다. "시인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이 주는 산만함 속에 시인 자신들이나 독자 스스로 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로 기획된 '문학과지성' 시인선은 1978년 황동규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를 첫권으로 펴낸 후 오규원, 김광규, 황지우, 이성복, 기형도 등 꾸준한 판매부수를 유지하고 있는 시인들의 시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 등단절차나 지명도에 상관없이 작품성에 기준한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신인발굴에도 힘쓰고 있는 이 시리즈는 현재 105권까지 나와 있다.

원로시인에서 최신예작가까지

이러한 선발 출판사들에 의해 태동된 시집 연속출판은 80년대 급박하게 전개되는 사회흐



름에 적극적인 응전력을 갖는 문학양식으로서 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80년대 들어 시집 출판에 나선 출판사들은 크게 세가지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단행본출판사와 문학전문잡지사,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띤 사회과학출판사들이 그것이다.

일반단행본 출판사들 중 비교적 일찍 시집 시리즈를 기획, 출간한 곳은 문학세계사와 청하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로 1백권을 돌파, 현재 123권의 시집을 내놓고 있는 문학세계사의 '현대시선집'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특정한 색채를 주장함 없이 모든 시인의 모든 작품을 수용한다"는 기획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리즈에는 3, 40년대 등단한 원로급 시인들의 작품집으로부터 최신예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향을 지닌 시인들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다. 10만부 이상의 판매부수를 기록한 김초혜의 「사랑굿 1·2」와 김소영의 「그대는 별로 뜨고」가 화제작. 장석주의 「완전주의자의 꿈」을 1권으로 1981년 출판한 청하출판사의 '청하시선'은 「홀로서기」의 서정운을 비롯해 「사람」을 내면서 등단한 황화주 등이 이 시리즈를 통해 첫시집을 내면서 문단에 등장한 시인들이 많은 것이 특색. 현재 74권을 기록중이다.

한편 일반단행본 출판사들 중에는 보다 다양한 기획으로 여러개의 시리즈를 동시에 펴내고 있는 곳도 눈에 띈다. 고려원, 열음사, 등지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

고려원은 중견작가의 작품집을 중심으로 한

'시문학총서'와 김명리, 원희석 등의 신예작가의 시집을 중심으로 하는 '시인선', 해방공간 시인들의 작품집을 주로 담고 있는 '시문고' 등 세가지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집을 출간하고 있다. 열음사는 「한국의 시인」, 「열음현대시인선」, 「젊은시인선」 등을, 등지의 경우는 「오늘의 젊은 시인들」, 「한국동인시총서」, 「등지시선」 등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시집 시리즈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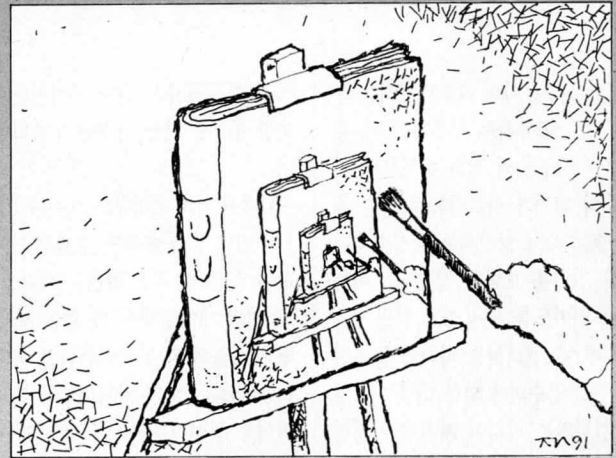
이밖에도 80년 초·중반부터 시집을 펴내고 있는 오상의 「빛나는 시」, 나남의 「나남시선」, 인문당의 「인문당시선」 등과 89년 시집 출판에 참여하기 시작한 세계사의 「세계사시인선」, 하락도서의 「하락의 흐름 위에」, 햇빛의 「햇빛시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작품집 중심으로 이념색채 두드러져

일반단행본출판사들의 시리즈들이 비교적 제한을 두지 않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집들을 목록으로 담아내고 있는 데 비해 사회과학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시리즈의 경우는 문학적 지향과 이념적 색채가 유사한 시인들의 작품집을 중심으로 한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사회과학서적 전문출판사는 아니지만 실천문학의 「실천문학의 시집」은 이러한 계열을 대표하는 시리즈. 1984년에 출판한 이 시리즈는 「팔레스티나 민족시집」, 「목요시선집」, 「반시선집」 등 주제별 시선집과 김정환, 양성우 등의 개인 신작시집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막일 노동자인 김해화의 「인부수첩」, 김지하의 서정시집 「애린」,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등이 대

표지를 꾸미는 즐거움



1987년부터 다섯해 동안이나 책 만드는 일로 먹고사는 일을 꾸러오면서 나름대로는 책 만드는 일에 이골이 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른글방 식구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책 만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늘 자신이 만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책의 얼굴이라고도 할 표지를 꾸미는 일에서는 언제나, 마치 낯선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두렵고,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내용을 함축적으로 반영할 것, 대상독자의 기호를 파악할 것, 신선할 것, 품위와 개성을 유지할 것, 그러나 책이라는 상품의 포장임을 잊지 않을 것…… 스케치하고, 찢고, 다시 그려보고 구기다보면 어느새 약속날짜는 다가오고,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 만들어 보낸 시안이 보기 좋게 퇴짜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성적 감각, 익숙한 방법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고집이 있어 늘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과 긴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책을 사랑하는 기쁨과 책을 만드는 즐거움이 함께 있는 집단, 바른글방에는 손에 익은 일하면서도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으로 표지 꾸미는 일을 어렵게 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편집기획부 전산사식부

종로3가 낙원상가열 신한빌딩 4층 종로3가 피카디리 극장 옆 초동빌딩 2층
전화 766-6426 (대), 766-6427 전화 764-4241 (대), 764-4240
766-1947 팩시 744-9209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사람들은 책에 관한 모든 일들을 거뜬히, 믿음직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편집 및 교정은 물론, 책의 기획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표지·본문·출판광고 디자인과 전산·수동 입·출력, 그리고 제작전반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대행해 드립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를 위해, 미려한 서체의 최신기종인 전산사식 편집·입력기 15대와 레이저 교정지 출력기·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를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퍼스컴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한 수동사식기와 중국어 간체자 자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적인 화제작. 현재까지 79권이 나와 있다. 풀빛과 청사도 비교적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집 출판에 나섰던 출판사. 1984년 김지하의 「황토」를 넘으로써 시작된 풀빛의 「관화시선」은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정명자의 「동지의 가슴 맞대고」, 최명자의 「우리들 소원」 등 노동자에 의해 씌어진 시집을 펴내 노동자문학의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 평단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34권이 나와 있는데 31권인 김남주 「솔직히 말하자」부터 별지로 수록하던 관화도록을 없애고 시리즈 명칭도 「풀빛시선」으로 개칭 시집의 특성에 따라 표지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같은 해인 1984년 양성우의 「오월계」로부터 시작한 청사의 「민중시선」은 현재 35권까지 나와 있다. 「시와 경제」 및 「오월시」 동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색. 판금도서였던 김남주의 「鎮魂歌」와 노동문학의 보다 진전된 결과로서 평가받고 있는 백무산의 「민국의 노동자여」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사회과학출판사들의 시집 출판은 80년대 후반에 들면서 보다 활발해졌는데, 사회과학서적의 퇴조에 따른 출판사들의 기획의 다양화 노력과, 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의 문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른 「시」에 대한 관심의 고조, 동인활동 등을 통한 젊은시인들의 대거등장 등이 그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풍자, 광주항쟁, 반사찰반고문 등 주제별 시선집과 이소리, 성희직 등의 개인 시집 등 17권의 시집을 내고 있는 황토의 「황토시선」 대학시, 현장노동시, 고등학생시 등 계층별 시집을 기획, 출판하고 있는 산하의 「산하시집」 등이 이 시기에 출발한 시리즈로 눈길을 끈다.

문학전문지 중 가장 먼저 시집 출판을 한 곳은 시전문지 월간 「心像」의 「心像詩選」. 1979년 권달웅의 「해바라기 환상」으로부터 최근 문영의 「그리운 파도」에 이르기까지 37권이 나와 있다. 1984년 서정주의 「안 잊히는 일들」로 출발한 월간 「현대문학」의 「현대문학시선」은 최근 27권으로 안경환의 「오늘 부는 바람」을 펴냈다. 「문학사상」의 「문학사상시선」은 현재 40권. 1986년에 나온 박두진의 「일어나는 바다」로부터 이용악의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시를 포괄하는 시인들의 시집을 펴내고 있다. 「시문학」의 시집 시리즈인 「시문학시선」은 1989년 그 첫권으로 손기섭의 「안개주의보」를 펴

냈다. 현재까지 19권. 구상, 문덕수 등 중견시인들의 작품집을 주로 하는 「오늘의 정예시인」 시리즈도 아울러 펴내고 있다. 화제작 「무림일기」를 첫권으로 출판한 「문예중앙」의 「문예중앙시선」은 최근 윤재림의 「미미의 집」에 이르기까지 9권의 시집을 펴냈다.

알찬 기획으로 교두보 역할 기대

이러한 시집 시리즈 출판의 확산은 무엇보다도 시집의 양적 증대를 통해 시집과 독자의 거리를 좁혀 「시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아울러 각 출판사의 기획을 통해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시집의 탄생은, 그 시집이 단순히 시인 개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출판사의 권위와 명예와도 연관을 맺게 됨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시인 선정과 기획 및 출판을 유도하게 되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집출판을 위한 각 출판사들의 신인발굴 노력은 젊은 작가들의 등장에 일정한 추동력으로 작용, 우리 시단을 젊게 했다는 것도 시집시리즈 출판의 확산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시인 고희영씨(창비사 편집장)는 「동일한 표지와 편집형식 등으로 시인의 개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것 같다. 아울러 목록채우기식의 시집 발간 사례도 없지 않아, 문학적 성숙도가 낮은 시집이 출간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지적한다.

완성도 높은 작품생산을 위한 시인의 부단한 노력과, 질이 고르고 내용이 알찬 시리즈를 만들어가겠다는 출판사측의 철저한 자기검열자세가 어우러져서 치루어 내는 시집 출판을 위한 産苦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 시단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시인의 권위와 출판사의 권위가 일치되는 시집 시리즈의 양산은 우리 시와 독자와의 행복한 만남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박남정 기자